

조선업 고용유지모델 추진

소관부서	팀명	담당자	
조선산업일자리과	기업지원	정동현	4154

-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조선산업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경제 안정화 도모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표 : **수주회복기 대비 및 물량 현실화까지 조선업 숙련인력 이탈 최소화**
- 사업기간 : 2020. 10. ~ 2021. 12.(사업별 최장 2023년까지 지원)
- 지원대상 : 관내 조선협력사 및 소속 노동자
- 사업비 : 877억원(국비 640, 도비 14, 시비 84, 사업주부담금 139)
- 사업내용 : 4개 분야 9개 사업

분야	사업내용	지원내용
고용안정	①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	4대보험료 사업주부담분 시50%, 도20% 지원 전국최초 시범사업, 최대규모 참여 및 지원
	②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	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부담분(10%) 전액 지원(1인 21만원/월 내)
경영안정	③ 특별 고용·경영안정자금 융자	500억 규모, 업체당 2억, 2년간, 3% 이차보전
	④ 중소기업육성자금 연장	만기 후 1년 추가연장, 3% 이차보전
	⑤ 지방세 유예 및 상하수도요금 감면	지방세) 징수·세무조사 등 유예 상하수도요금) 6개월, 50% 감면
동반성장	⑥ 조선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	조성규모 100억 이상, 도6억, 시6억 출연 지자체 두 번째 사례, 출연규모 전국최대
	⑦ 외부물량 재조정을 통한 고용유지	해외 및 역외 유출물량 지역내 최우선 배정
제도개선	⑧ 일-학습 병행제 및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준 완화	입사년수 1년 → 10년(또는 5년) 투자유치+일자리창출 → 고용유지 추가
	⑨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	2020.12.31. 기간만료에 따라 2021년 말까지 지정기간 연장

□ 정책특성

- **(고용유지형 일자리 모델)** 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둔 타 지자체 일자리 모델과 달리 숙련인력의 고용유지에 목표를 둔 정책 마련
- **(사회적 대타협으로 마련된 상생형 모델)** 상생협의회 구성(대우·삼성 양대 조선+사내·사외협력사+지자체 및 지역사회+중앙정부·경남도) ▶ 이견 조정 및 양보 ▶ 각 주체간 상호 신뢰와 배려 바탕으로 한 상생형 모델 구축
- **(고용위기 대응 토털케어 모델)**

고용위기극복



⇒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+ 고용유지지원금 + 일 ▶ 융합·순환

⇒ 특별용자, 육성자금연장, 기금지원, 제도개선 등을 통해 뒷받침

▶▶ 고용유지 효과 극대화

□ 추진사항

시 기	추진내용
2020. 5.	◦ 양대조선소장 간담회
2020. 6.	◦ 사내·사외협력사 대표, 상공회의소 간담회
2020. 7.	◦ 한국노동연구원 및 희망제작소 업무협의 ◦ 고용노동부, 산업인력공단, 경남도, 공동훈련센터 간담회
2020. 8.	◦ 직업훈련사업 수요조사 ◦ 조선업 고용위기극복 상생협의회 구성 및 실무협의 1차 회의
2020. 9.	◦ 상생협의회 실무협의회 2차 회의 개최 ◦ 조선업 고용유지 및 활력회복 위한 정책포럼 개최 ◦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시범사업 업무협약(고용부↔경남도)
2020. 10.	◦ 조선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협약 ◦ 상생협의회 실무협의회 3차 회의 개최
2020. 11.	◦ 조선업 고용유지 상생협약 및 고용유지모델 발표 기자회견 ◦ 조선협력사 고용유지 금융지원 협약 ◦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설명회 ◦ 고용유지모델 활용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정리해고 문제 타결
2020.12.	◦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지원계획 공고

